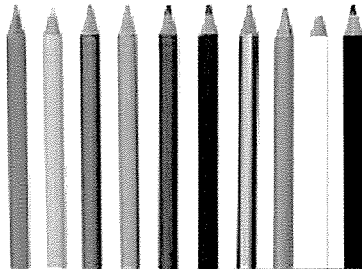


“건강증진 성공사례 및 건강생활 실천수기” 현상공모 수상자 명단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 상 : 조은영(크리스마스썰에 사랑을 싣고) | 장려상 : 이혜진(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사시는 분들께) |
| 은 상 : 구철화(잔인한 4월을 이겨낸 건강검진 이야기) | 장려상 : 권용재(조기발견의 중요함을 새삼 느낀...) |
| 은 상 : 정희승(어머님 고마워요. 아가 고맙다) | 장려상 : 한동철(사랑하는 아내야, 딸 누리야 미안해) |
| 동 상 : 엄옥순(위암! 그 귀여운 암덩어리) | 장려상 : 김삼민(니코틴의 늪 탈출 성공기) |
| 동 상 : 김선태(체력! 내 나이보다 20년 젊어질 자신있다) | 장려상 : 김경아(질병치료 사례) |
| 동 상 : 함정금 (행복의 조건) | 장려상 : 윤기훈(잊을수 없는 한국건강관리협회) |
| 동 상 : 오은경(정낭결) | 장려상 : 정성재(건강은 건강할때) |
| 동 상 : 서상부(푸른내일을 위하여!) | 장려상 : 류치상(화려한 외출) |
| 장려상 : 정순덕 (건강할때 정기검진 꼭 필요) | 장려상 : 홍선경(퇴행성관절염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사례) |
| 장려상 : 진안군보건소(건강증진사업의 성공사례) | 장려상 : 박수미(건강검진에 대해) |

건강증진 성공사례 현상공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

내가 해 마다 ‘크리스마스 썰’을 사는 이유

건강증진 성공사례 및 건강생활 실천수기 수상작품

금 상 조은영(경북 경주시 동천동 우방 아파트 110-706)

“크리스마스 썰 50장 주세요?”

“!!!!!!”

우체국 직원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건네준다.

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새해를 맞을 때 고마운 이에게 연하장을 보내면서 우표와 함께 나란히 부치는 크리스마스 썰이 올해로 십 오년째다 ...

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우표값과

썰 값이 같았는데 올해는 우표보다 30원 더 비싼 200원 이지만 말없이 만원을 건넸다 만원 한 장에 왠지 모를 마음의 빛을 갠 흥가분한 기분이다.

학창 시절 의무적으로 썰을 사면서 짜증을 냈던 내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 마다 썰을 사서 고마운 마음을 함께 부친다 네모난 크리스마스

스 썰에 깨알 같이 적힌 결핵협회가 스무살의 가난했던 결핵 2기의 나를 살렸고 이젠 중년의 내가 소외받고 외로운 결핵 환자를 조금이라도 돕는 마음으로 십 오년째 연하장에 그 사랑에 빛진 마음을 담는다.

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고 미웠던 마음은 다 잊고 예쁜 마음만 기억해 달라는 애교 섞인 글과

새해에는 건강하세요란 끝인사로
마무리를 하고는 우표와 나란히 씌
을 부친 연하장을 우체통에 쏙
집어 넣는다.

빨간 우체통에 사랑과 고마움의
연하장을 넣는 순간,

아~나는 현기증을 느끼면서 세
월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아
주 오래전 잊었던 열 아홉
의 소녀로 돌아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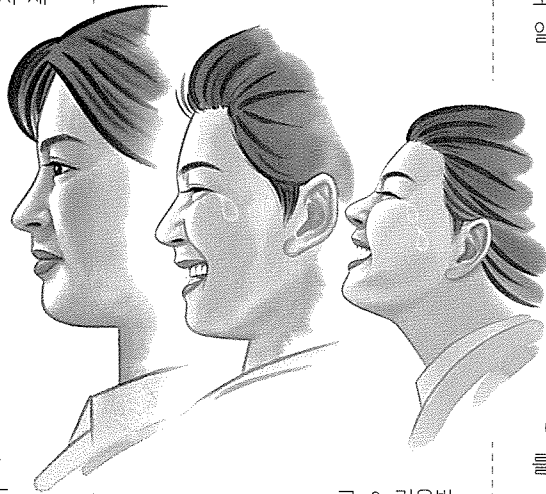
그 당시 하루 품팔아 하
루를 살아야 했던 노동자
아버지는 공사판 막노동꾼
이었다. 친구들 다 가는 대
학이란 곳은 내가 너무나
가고싶은 꿈인 동시에 가난
한 우리집 형편에는 사치품
이었지만 배움에 목이 뒹던
나는 대학이 무슨 메마른 사
막의 오아시스였다. 가난한
형편을 볼 보듯 뵈히 보면서도
완강한 아버지 앞에 대학원서를 조
심스럽게 내놓고 무릎을 꿇었다.

“아버지~ 대학 등록금만 한 번
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아르바
이트를 해서라도 돈을 벌 테니 제발
대학에 보내주세요.”

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
아버지께 꿇어앉아 애원했던 열 아
홉의 딸을 껴안고 힘없고 돈 없던
아버지는 못난 아버지라고 무능함
에 우셨던 그 기억이 선홍빛 핏빛
처럼 뇌리에 각인이 되었다. 언제나
술에 찌들려 술 심부름만 시켰던
싫던 아버지였는데 딸의 간절한 마
음에 가슴아파 하는 아버지의 사랑
을 부끄럽게도 열 아홉이 되어서야
읽었던 것이다.

그 시절 100명이 넘는 회사 사업
체에서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
어야 한다는 법조항이 생기면서 식

품영양과는 아주 유망한 과였다. 대
학만 졸업하면 돈을 많이 벌어 집
에도 보탬이 되고 아버지도 더 이
상 공사판에 나가지 않아도 될것
같은 희망에 열 아홉의 나는 가슴
이 마구 뛰었다.



고 3 겨울방
학때 집 근처 공장에서 두 달 아르
바이트를 했다. 그 당시 반 지하 인
형공장에서 약간 잔업까지 했던 나
는 등록금에 보태기위해 하루 열
시간의 잔업까지 마다 않고 열심히
일을 했고, 다음해 꽃 피는 삼월에
어엿한 여대생이 되었다. 아버지와
의 약속대로 장학금도 받아 학비에
보탬고 방학동안 빠짐없이 신발 공
장으로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면
서 퍼줄 맞추듯 힘겹게 등록금을
맞추었다.

그래도 행복한 것은 공부를 할
수 있다는 기쁨에 몸이 힘든 줄도
몰랐고 다른 친구들이 미팅을 하러
다닐 때도 부럽지 않았다. 단지 아
버지가 대학에 보내준 것 만 해도
내겐 큰 희망이고 행복이었다.

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이
었다.

영양사 시험을 치기위해서 먼저
건강검진을 받고 통과가 되어야 시
험을 칠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. 그
래서 우리과 친구들과 종합 병원에
서 폐결핵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
촬영을 했고 피검사를 했을때만 해
도 나는 결핵이란 전염병이 남의
일 인줄 알았다.

검사를 할때도 친구들과 깔깔대
고 장난쳤을 만큼 건강에 자신
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에
게 이런 엄청난 병이 있다고는
꿈에도 생각지 못했다. 도서관
에서 영양사 시험준비를 위해
막바지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
는데 교수님이 조용히 부르셨
다.

“은영아 참으로 안타깝기 짝
이 없다 너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
를 했는데...”

교수님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
말꼬리를 흘리셨을 때도 아무런 이
유를 물렸다.

“검사가 나왔는데 결핵 2기로 나
왔다...시험은 내년에도 있고 너는
아직 젊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
병을 치료하고 나서 다시 시작을
하자.”

교수님의 그 말씀은 내겐 청천벽
력 같은 소리였다 가끔 피곤하고
미열이 나고 기침이 났던 것이 감
기가 아니었다. 공부와 아르바이트
를 겸해서 몸이 일시적으로 피곤해
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.

“내가 결핵이라니? ..남들이 병
을 옮을까봐 피하는 법정.전염병이라
니... 120명 다른 친구들은 다 멀쩡
한데 유독 나만 결핵이라니..그럼
시험조차 칠 수 없단 말인가??”

<다음 호에 계속>